

코스닥시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신주와 구주가 따로 거래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신문에 실리는 주식시세표에도 따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코스닥 등록 종목인 서울방송을 보면 주가시세표 상에 기존의 주식 외에 「1신」으로 표시되는 신주가 따로 독립돼 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신주는 기업이 증자 등의 방식을 통해 새로 발행한 주식으로 결산기(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2월31일)를 지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결산기가 지나면 합병돼 신주와 구주의 구분이 없어진다. 주식시장에서도 하나의 주식으로 같이 거래된다. ◆ 신주 주가, 구주 주가 따라 결정 신주와 구주를 구분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배당금에서 비롯된다. 배당금을 구분하는 기준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구주는 결산기 첫날, 신주는 발행일이 배당 기준시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회사 입장에는 주식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 회사발전에 기여한 정도가 다르면 당연히 배당금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리에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발행된 신주가 구주에 비해 기여도가 낮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참고로 신주의 배당률은 발행일로부터 결산기말까지의 일수를 3백65일로 나눈 다음 구주배당률을 곱해 산출한다. 전체적으로 신주의 주가가 구주에 비해 싼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신주가 상장될 때 기준가격은 배당차이를 감안해 그만큼 낮게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만 없다면 신주 주가가 구주보다 낮은 것이 정상이다. 그렇다면 합병은 어느 쪽으로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신주가 구주에 합병된다. 신주가 구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자연 신주의 주가 역시 구주의 주가를 따라간다. 신주 주가가 9천원이고, 구주 주가가 1만원이었다면 합병되는 순간 주가는 1만원으로 되고 신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최근 (주)코스닥증권시장에서 신주, 구주를 가리지 않고 거래량이 많은 쪽으로 합병하는 방법을 논의했으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주가격보다 싼 신주를 가진 투자자들이 일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까지 지금의 가격이 유지만 된다면 종목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대개 10% 안팎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매수 타이밍만 잘 잡아 해당 종목을 사면 짭짤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코스닥 중